월요광장

왜 우리는 서로를 벌레로 부르는가?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이 사람을 '벌레'라고 부르는 세상이다.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다는 이유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집단을 '벌레'라고 부른다. 자식을 버릇없이 키운다고 해서 '맘충'에, 한국 남자들은 흉악범이라는 뜻의 '한남충', 노인들은 '틀니충'이고 심지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홍어충'이라고 한다.

그저 별 생각 없이 재미로 하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벌레로 가득한 느낌이다. 설령 이러한 현상이 한때 유행하고 지나갈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특정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은 그 집단의 의식과 정서적 상황을 투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벌레'로 부르는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서로를 '벌레'라고 마구잡이로 비하하는 모습에서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항상 같은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주인공은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제대로 놀라기도 전에 직장 상사의 질책을 떠올리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 해고의 두려움과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가족이 먼저인 것이다. 그러면서 벌레가 된 것은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며 죄의식마저 갖는다.

벌레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이 회사의 명령에 충실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시계의 알람을 4시에 정확하게 맞추고 잠을 자는 일이다.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직까지 병가를 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도 소원은 있다. 한 번쯤 다른 사람들처럼 잠을 충분히 자고 여유 있게 아침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원도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끝난다.

"사장한테 한번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해 볼 만도 한데. 그러면 당장에 쫓겨날 거야. 하지만 쫓겨나는 게 내게 좋을지도 몰라."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해고를 바라는 감정 사이에서 한 사람의 위태로운 삶과 삶을 지배하는 것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살기 위해서 누구나 먹고 입어야 하고, 쉬고 잠을 자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노동하는 목적과 이유는 아니다. 사람은 노동함으로써 동물적 생존을 넘어서 자기실현과 성취를 이루며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런 뜻에서 노동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며, 또한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 퇴근 후에 하는 일이라고는 다음날 아침 일어날 시간을 맞춰 놓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 사람에게 무슨 자기실현과 인간성의 고양인가! 여기에다 '노오력'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고 민망한 일이다.

그럼, 노동의 예속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은 사람을 결정하고 보증하기 때문이다. 실직과 무직은 일자리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밖으로의 추방을 의미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세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며 '쓸모'의 등급이 나눠진다.

벌레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이 아닌가! 쓸모없는 존재를 혐오하는 것은 가족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노동에 예속되어서, 사는 데 급급한 세상에서 가족 또한 이기적이고 기능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래서 가족은 벌레를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한때 성실한 가장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고, 좋은 오빠였던 사실도, 벌레가 된 후에도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인공은 벌레가 된 후에야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음악을 비로소 듣는다. 이제야 시간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망이 벌레가 되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지독한 역설인가?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만, 일할수록 소외와 배제의 덫에 갇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모두가 상품이 되고 소모품이 되는 거대한 시장의 구조로 움직일 때, 쓸모에 따라서 교환되는 소외된 삶, 즉 벌레의 삶은 피할 수 없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어느 청년 노동자가 일을 하는 도중 사망하였고, 가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 청년에게 노동은 무엇인가? 살기 위한 노동은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도구였고 원인이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구조와 조건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자신의 노동이 자신을 파괴하는 세상에서 희망과 삶의 긍정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

총체적으로 왜곡된 구조 안에서는 벌레의 삶만이 강요되고 계속될 것이다. '변신'의 주인공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타인을 벌레라고 말하는 혐오감에는 소외감과 분노와 절망이 진하게 배어 나온다. 소설 이야기가 현실로 계속되는 한, 그럼에도 변화를 서둘지 않는 한, 서로가 서로에게 벌레로 보이며, 그러므로 벌레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조칼럼

침묵하는 그들을 위하여

강 윤 진
광주지검 검사

길을 지나다 가끔 간절한 부탁이 눈에 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진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는 언제든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해자)·피해자·참고인(목격자)이 될 수 있다.(여기서 참고인은 피해자 외에 제3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 중 참고인 진술은 수사기관에 있어서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중요한 증거다.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인 본인에게는 참으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쁜 시간 쪼개서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했더니, 몇 달 뒤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고, 다시 몇 달 뒤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오다니.

"난 그냥 어쩌다가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계속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한번 진술하면 됐지 왜 또 법원까지 가서 증언해야 합니까.", "제가 진술한 것을 알면 가해자가 저한테 보복할지 몰라요."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가해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도처에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진실게임의 퍼즐 한 조각을 가졌을 가능성 있는 제3자가 진술을 거부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정의와 진실은 얼마나 멀어질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 서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이하 규정에 의해 그 진술자가 재판에 나와서 자신이 그와 같은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제대로 진술했어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일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필자는 다른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딸을 강간한 의붓아버지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을 수행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었고, '피해 진술을 번복하라'는 모친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상담했고, 만약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간다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검찰청이든 법원이든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가해자 측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인적사항과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및 화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그 보건교사를 겨우 출석시킬 수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외에도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참고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생략한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처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대응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혹시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면서도 내가 그 사고를 목격한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의 경험담, 내가 본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여럿을 살리고, 그 여럿을 살리는 힘이 바로 정의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찾는 그 치열한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기 고

청년 일자리, 넉넉하고 당당하게

이 종 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지난 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시는 지난해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시와 함께 본선에 오른 광산구는 최우수상을 북구는 특별상을 수상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비록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낮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세계적인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의 지속 그리고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 지역의 고용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시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사업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는 등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서 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시로서도 여전히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고용창출 문제가 시대적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청년일자리 예산을 증액, 212억원을 투입하여 21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2개 청년일자리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을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돌파구로 삼고자 '창업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창업의 중추기관인 광주이노비즈센터,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삼각축으로 하는 '창업활성화 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 본격 개소할 동구 동명동의 'I-Plex 광주(지식산업센터)'내에 청년창업의 허브가 될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청년 Start up(신생벤처기업)'의 산실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영역에서 만들어 지는 만큼 우리시가 강점을 가진 기아차 중심의 자동차산업과 한국전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산업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워 나가고,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시와 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공조협력은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900여명 중 7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면서 시민이 다함께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지역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이곳 광주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은 청년들만의 숙제로 남겨두어서는 아니 되며, 정부와 시 그리고 기업과 시민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라 하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오늘 국회 개원…지역 의원 활약 기대된다

국회의장에 정세균 의원이, 부의장에 박주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회의장단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구성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이 국회의장단을 석권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18개 상임위는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맡기로 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쏠린다. 특히 국민의당이 노른자위로 불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유성엽, 정읍)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장병완, 광주)등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사실에 주목한다.

교문위에는 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의원이 배치됐다. 이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것은 교문위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지난해 개관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비롯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내 면세점 유치 등 국비 지원이 이뤄져 할 현안 사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유치,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 등 광주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대부분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다행히 산통위에는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손금주(나주·화순)·이용주(화순갑) 의원 등 3명의 지역 의원이 배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4선의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주승용(여수을)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배치됐는데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등이 주요 현안들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국민의당 황주홍·정인화·윤영일 의원과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배정됐는데 농도(農道) 전남의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된다. 오늘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그러한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혼신을 다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억대 뒷돈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이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거공보 제작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1억 7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며 고발했다.

또 국민의당 선거 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전 사무총장·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감을 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민원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는 정치권의 구태를 없애고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이 이에 대해 "돈은 관련 업무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며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당의 초기 대응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인데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 연루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당내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윗선' 개입 여부, 김 의원 공천 과정 등 모든 의혹을 파헤쳐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부를 도려내야만 당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無 等 鼓

화학적 거세

2011년 우리나라에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도입될 당시 논란이 많았다. 재범과 성욕 억제를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집행되는 탓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에 끝을 맺었다. 최근 인도네시아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아동 성폭행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고 화학적 거세를 단행하는 극한 처방을 내놓았다.

화학적 거세는 일부 국가들이 성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지만 개미 세계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수단이다.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생식과 체제가 유지되는 개미 사회의 속성상 화학적 거세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함은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미 사회는 오로지 여왕개미만이 알을 낳아 유지된다. 일개미들은 유전적으로 암컷이지만 그들의 생식기관은 여왕개미의 억제 물질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왕개미가 내뿜는 물질, 즉 화학적 거세가 일개미들의 외도(?)를 막고 오로지 사회를 일해서 일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개미는 여왕이 낳은 알을 키우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담당한다. 이 밖에 사회를 지키는 병정개미, 여왕개미와 짝짓기만을 하는 수개미 등으로 역할이 구분돼 사회가 유지된다. 여왕개미가 죽거나 개미 사회가 너무 커져 여왕물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성성이 회복돼 변두리 지역에서는 일개미들이 몰래 알을 낳기도 한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지역민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학부모가 자식의 선생님을 성폭행한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으로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집단 또는 패륜 성폭행범은 화학적 거세는 물론 물리적 거세도 검토돼야 한다. 죄인에게도 인권은 중요하지만 분명히 한계를 넘은 성범죄는 징역형이 아닌 거세형이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